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박차 아톤산업과 요소수 공급 협약

무주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피해 보상금 산출 속도

무주군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7~9일 최대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하류 지역인 무주읍, 부남면 일원의 농경지, 농작물, 건물 등 지역과 시설 등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군은 피해 주민들의 자료 확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마을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확인과 피해 자료 확보를 위해 서류 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



용담댐 하류 방류 피해관련 비대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회의의 집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피해 주민대표와 피신청인(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분쟁 사건 진술로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지난 3월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민들과의 면담 및 피해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등 피해조사를 펼친 결과 287가구, 570건, 약 8억 원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대표 3인을 선정하고 손해사정 평가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 13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 피해 보상액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지난 3일 열린 용담댐 하류 방류 피해관련 비대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에서는 전문회의의 집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피해 주민대표와 피신청인(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분쟁 사건 진술로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앞으로 피해주민 대표 개별면담과 2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보상액이 산출될 전망이다.

11월중 손해사정조사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피해까지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군은 그동안 힘들고 지친 피해주민들을 위해 조속하게 피해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15일부터 4개 보건지소서 부스터샷 접종 시작

장수군은 오는 15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이 미설치된 번안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4개 보건지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한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이며, 추가접종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180일) 이상 지난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접종 후 2개월이 지난 면역저하자 및 안면접종자다.

지소별 일정은 ▲번안면 11월 29일~30일 ▲천천면 11월 15일, 24일 ▲계남면 11월 16일, 23일, ▲계북면 11월 17일, 22일이며, 사전예약을 완료한 대상자만 접종가능하다.

보건지소 추가접종 사전예약 방법은

소재지 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으로 할 수 있으며 보호자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접종 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로 안전장비 착용을 관철을 위해 1시간에 접종인원이 10명으로 제한돼 일일 최대 50명만 접종하므로 원하는 시간에 접종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예약을 서둘러야 한다.

장수군은 향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50대 연령층, 경찰,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8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17일까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4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먼저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준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2월 9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각종안건

을 심사한다.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옥주)에서는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갑수)에서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수선해 질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공직자 본연의 책무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에 모두 함께 따뜻함을 나누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무주군이 자동차 매연에 대한 저감 효과가 있는 요소수 안정적 공급에 길이 열렸다. 무주군은 8일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과 무주군 관내 요소수 안정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원주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체결은 무주군 김희욱 부군수와 (유)아톤산업 김기원 대표가 참석했다.

요소수는 요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로, 경유 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갖고 있다.

협약 내용은 △무주군 관내 요소수 유통량 우선공급 및 확보 △공공기관 경유차량 요소수 우선 공급 △(유)아

톤산업 요소수 생산을 위한 행정지원 △요소수 수급안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군과 (유)아톤산업은 이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김희욱 부군수는 "요소수 업체와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무주군은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아톤산업 김기원 대표는 "무주군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요소수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북에서 유일하게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는 (유)아톤산업은 일일 평균 100톤 정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수군은 8일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으로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과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중국의 요소 생산감축 및 요소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요소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장수군은 협약을 통해 관내 요소수 유통량을 우선 공급 받으며, 장수군 공공기관 경유차량에 요소수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장수군은 요소수 공급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협약했다.

요소수 부족 현상으로 관내 소방차, 산발감시차량, 농기계까지 모두 멈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요소수를 필수로 사용하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장영수 군수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와중에 안정적인 요소수 공급을 위해 장수군과 협약을 해주시는 (유)아톤산업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며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방안을 모색해 발빠르게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잇따른 행정소송 승소로 예산 절감효과 거둬

무주군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주군은 물 들어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매번 보상하던 미불용지금을 무주군이 아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 6,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봤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분 취소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전년 대비 5% 상승한 금액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2,700여 만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도 건축허가는 정당하고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는 지는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유도해 남비현상으로 진행될 유사한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최원희 기획실장은 "2020년부터 법률전문 직원을 채용, 직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단계부터 분쟁의 소지를 줄여 행정심판이 급격히 감소됐다"며 "행정소송에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승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금의 낭비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법무 행정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군정의 신뢰도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은 적극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적응으로 행정심판 제기율도 줄여 올해 11월 현재 행정심판 제기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도 모두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협의회, 마스크 후원

진안군은 8일 익산시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회장 안진영)에서 150만 원 상당의 텐탈 마스크 1만장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입주기업협의회는 현재 65개 회원사를 두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명품 식품산업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의 상생 발전에 관한 상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에도 관심이 많아 도내 지자체에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군은 이날 기부된 마스크를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진영 협의회장(CNC커피(주)대표)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기부하게 되었다"며 "사실 기업체들도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드림스타트팀 벤치마킹 기관으로 '우덕'

진안군 드림스타트팀이 벤치마킹 하려는 기관들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 9월 '2021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진안군 드림스타트팀의 우수기관 선정 과정에 대해 배우려는 지자체들의 방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충북, 충남 등지의 방문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부안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공동생활운영 가정(그로움)의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과 운영의 전반에 대해 벤치마킹이 이어졌다. 8일에는 옥천군에서 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을 배우기 위한 방문도 이어졌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의 우수 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져 전국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